

# 폴란드 화학산업 안정적 성장...

## 고무 · 플라스틱 수요 2자리 신장 ... 투자 활성화에 고무가 중점

폴란드 화학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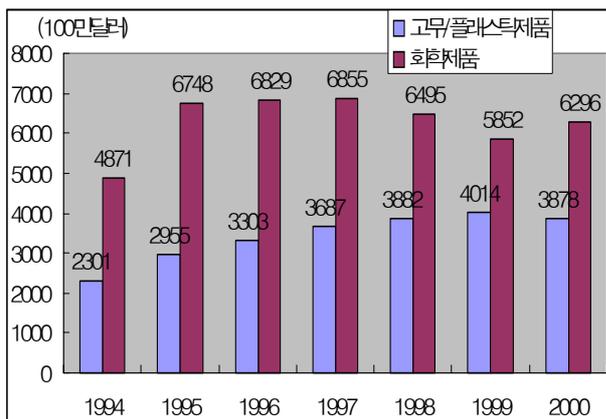
폴란드 외국투자청에 따르면, 폴란드의 화학공업 생산액은 GDP의 8%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무 · 플라스틱 제품이 연평균 2자리수 성장하고 있고 의약품과 화장품, 화장실용품 등 고부가가치제품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.

기타 화학제품은 수입이 수출을 웃돌고 의약품, 합성수지 등 수입비중이 높은 분야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적극적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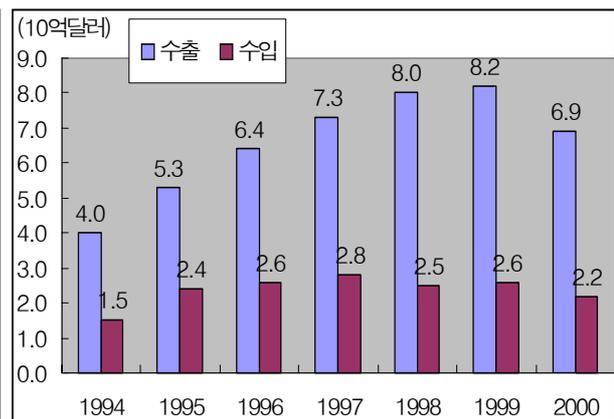
폴란드는 2000년 7월말 현재 화학기업 수가 1만6200개로 1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은 371개, 외국자본 투자기업은 647개에 달하고 있다.

2000년 화학제품 총매출은 62억9600만달러로 고무 · 플라스틱제품이 38억7800만달러로 50% 이상을 차지했다. 특히, 고무와 플라스틱제품의 매출증가가 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1%에 달하고 있다.

폴란드의 화학제품 매출추이



폴란드의 화학제품 수출입 비교



2000년 화학제품 및 고무 · 플라스틱제품의 매출비중은 포장용 플라스틱 22%, 화장품 · 화장실용품 11%, 유기화학제품 10%, 의약품 10%, 화학비료 8%, 고무 · 플라스틱제품 9%, 기타 30%로 나타나고 있다.

2000년 화학제품 수출입은 수입이 69억달러, 수출이 22억달러로 수입이 수출을 크게 웃돌았다. 1994년과 비교해 2000년의 수출액은 47%(97억달러) 증가한 반면, 수입은 100% 증가했는데 수출은 연평균 8%, 수입은 12% 증가했다.

수출비중은 플라스틱제품 22.0%, 고무 13.8%, 합성수지 8.4%, 화학비료 7.7%, 화장품 7.1%, 비누 · 세제 4.4%, 기타 3.8%이고, 수입비중은 플라스틱제품 18.6%, 의약품 18.0%, 합성수지 13.7%, 고무제품 5.4%, 염료 · 안료 · 도료 7.3%, 기타 화장품, 향료, 윤활제, 사진감광재료 등이 37.0%를 나타냈다.

한편, 화학산업 투자액도 1995년부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, 2000년 화학제품 부문 투자액은 9억 4500만달러로 1995년의 약 2배에 달했으며, 고무 · 플라스틱 제품은 1995년의 3배인 4억6300만달러로 확대됐다.

외국자본의 화학산업 투자분야는 의약품, 화장품 · 화장실용품, 도료, 공업용 가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. 폴란드의 화학산업은 안정돼 있고 투자환경도 양호하며 원료와 에너지, 인건비 면에서도 우수한 편이기 때문이다.